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학교에서의 주의사항



김종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여름철에 산란된 털진드기 알이 가을철이 되면 부화하여 털진드기 유충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털진드기 유충은 성장하기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는데, 쯤쯤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한다.

잠복기는 1-3주 정도이며,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약 60%에서는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 그림)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주로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인 겨드랑이, 가슴, 종아리, 사타구니 등에서 많이 확인된다.



쯤쯤가무시증은 털진드기가 서식하는 수물환경에 노출되어 주로 발생한다. 텃밭가꾸기와 같은 체험활동, 풀밭 위에 누워서 휴식하기, 농사관련 작업에 참여한 경우 감염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 따라서 야외작업 시에는 긴팔, 긴바지, 모자,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아야 하며, 휴식 시 돛자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집으로 돌아간 즉시 목욕 및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참진드기(그림)에 물려 발생한다. 하지만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전파될 수 있으며,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나 강아지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부터 11월까지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농업 관련 작업, 등산, 성묘, 벌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때, 주로 수물이 우거진 곳에서 서식하던 참진드기는 지나가는 사람과 접촉하면서 노출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성충 암컷
Adult female

성충 수컷
Adult male

약충
Nymph

유충
Larva

1mm